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4강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자산배분 전략'

오대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국내 성장동력은 내수보다 수출에서 찾아야”

21년만에 대미 수출 중 추월...소수 기업 수혜 집중 방산·화학품·엔터 추가 전망 기대...AI 종목도 고려

“우리나라 성장동력은 내수보다는 수출 시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5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4강에서 오대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자산배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오대동 본부장은 “바람이 불면 쌀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일본 속담을 소개하며 강의의 문을 열었다.

그는 “바람이 분다”라는 원인과 “쌀통 장수가 돈을 번다”는 결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 모습이 원인과 결과가 매우 다르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며 “상이한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중간 과정을 하나라도 예상할 수 있다면 그다음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오늘 강의도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자산배분 전략을 가능해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세계화’라는 단어 대신 떠오르는 ‘글로벌 경제 불복합화’를 언급했다.

오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유럽의 견제 양상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세계가

조개지는 불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국가 간 경제 양극화”라고 시사했다.

이어 “자산 배분보다 경기 회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며 “이에 따라 미국 내 투자가 확대되고 현재 3억4천500만명에 이르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오 본부장은 또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운반 하역기계 등 공장 설비 분야를 수출하는 소수 기업만 수혜를 봤다”고 꼬집으면서 “투자 시 미국과 연관된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앞으로의 경제 성장동력은 내수가 아닌 수출에 있다고 내다봤다.

오 본부장은 “한국의 문제는 인구 감소가 내수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 건설 투자, 공장 설비 투자 등 모든 것이 둔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동력은 수출인데, 특히 미국과의 수출만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 흐름이



본보 주최로 지난 5일 오후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4강에서 오대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자산배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정은솔 기자

바뀌 것이라며 강의를 이어갔다.

오 본부장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원 의회를 누가 차지하느냐도 관련 포인트”라며 “우리 경제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과 향후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었다.

오 본부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원·달러 환율은 1천500원-1천250원 사이에서 움직였지만, 지난해부터 1천450원이 기본 범위가 됐다”며 “1천300원까지 하락하면 달러를 사고 1천

45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내년 상반기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투자 포트폴리오는 수출주 중심으로 구성하되 방산, 화학품,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을 눈여겨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1분기 기준 21년 만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수출을 잘 살펴야 한다”며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재차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정은솔 기자



故 김호진 의원 전담도의회장 영수

전남도의회는 6일 나주 소재 빛가람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호진 의원 전담도의회장을 영수했다.

의회장은 김 의원의 유가족을 비롯해 김태균 의장 및 동료 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자리로 거행했다.

이날 의회장은 신성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명성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장외위원장인 김태균 의장은 조사를 통해 “마음을 다해 의정을 펼치는 고인의 삶은 참 아릅답았다”며 “함께 이뤄가고 싶었던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허락된 시간이 무심히도 짧았음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애도했다.

나주 출신인 고 김호진 의원은 1977년 3월12일 생으로 나주시와 전남도 발전에 헌신한 정치인이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후반기엔 기획행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김재정 기자



순천농협 '조합원 게이트볼 대회' 성료

순천농협은 6일 “전남 순천 상사종합운동장에서 ‘제12회 순천농협 조합원 게이트볼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관내 28개 팀 선수와 농협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게이트볼 대회는 조합원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조합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순천농협은 평소 조합원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했고, 승부를 떠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최남훈 순천농협 조합장은 “게이트볼 대회는 젊은 시절 농협 발전에 헌신하고 지금도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는 원로 조합원을 기리는 자리”라며 “조합원 간 교류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조합원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결과 우승은 조곡분회가 차지했고 동부북지분회가 준우승을, 해룡분회와 승마분회가 각각 3위를 기록해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받았다. /순천=양홍렬 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2024 성과공유회' 성료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단장 최강남)은 6일 광주사회복지회관에서 '2024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나답게 크는 아이' 현상 과학교사,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기념한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발전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표창, '아동친화도시 광주' 시화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 등이 진행됐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의 주요 사

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준범 남부대 총장은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교육·돌봄의 가치를 확산하며 센터와 아동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강남 단장은 “20년 동안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주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경찰청-금감원 등 '피싱범죄 예방' 간담회

광주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7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금융감독원, 제1금융권, 상호금융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전화사기 등 피싱 범죄의 최근 사례와 수법, 피해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손님이어서 의심

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속하게 전화 하도록 하는 등 대응 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광주경찰청은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성이 높은 대형 전광판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는 물론 금융기관 내 모니터 등에도 안내 문구와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송원대-서울용산철도고 '철도분야 인재양성' 협약

송원대학교는 6일 “전남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용산철도고등학교와 인재 양성 및 교육 체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양 기관의 철도 관련 지식·기술의 상호 교류와 연구활동 ▲교과 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대학 위탁 교육의 지원 및 협조 ▲기타 상호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서울용산철도고와의 협약이 철도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동강대, 교수·학생 나눔실천 헌혈 캠페인

동강대학교가 교수와 학생들이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6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동강대 간호학과 R CY 동아리는 최근 교내 교수연구동과 인문사회관 등 2곳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간호학과 R CY 동아리는 교내 곳곳에서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헌혈의 의미 및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고, 김은식 임상병리학과 교수와 이봉선 의식조리제빵과 교수 등이 동참하며 숭순 수범했다. /김대이 기자

동강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차례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헌혈증을 기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생명나눔 확산을 위한 헌혈 협약을 맺는 등 따뜻한 이웃 사랑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RCY 동아리를 지도하는 허숙 교수는 지난 5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광주전남지사 연차대회에서 적십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대이 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업 '지역산업 균형발전' 대통령 표창

전남도는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 친환경농업 우수 사례로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농업인과 함께 이룬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09년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 제정, 2010년 유기농 생대마을 도입, 2022년



친환경 비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전국 최초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추진했다. /김재정 기자

결론

▲박정숙씨 장남 백중진(남해화학 전기기사)군, 니중국(오룡철물·공구 대표)·양남희씨 장녀 행웅(고창식품 산업연구원 연구개발실 연구기획 팀 연구원)양=10일(일)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3층 안절로홀. (062-710-4000, 010-3610-8703)

▲김원봉·임혜경씨 장남 진호(베스트디지털 제1연구소 연구원)군, 윤사선(건양건설 대표)·허윤숙씨 차녀 지원(MCM korea 디자이너)양=16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갑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010-5467-4150.